

“BTS 국내 콘서트 10번 경제효과 12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난해 LA공연 등으로 추정 “BTS 콘서트 코로나 이후 시대 시작하는 신호탄”

방탄소년단(BTS)이 국내에서 연간 10회 공연할 경우 최대 12조2068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일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1회 공연당 6779억~1조220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산치는 문광연 문화산업연구센터가 콘서트 티켓과 기획상품 판매액, 외래관광객의 관광 소비지출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내놓은 것이다.

문광연은 코로나19 종식 후의 보복소비 등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외래관광객 비중을 따라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했다.

외래관광객 비중이 최대 50%로 늘어날 경우 BTS 공연 1회당 소비총액 규모는 7422억원, 생산 유발효과는 1조220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706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만815명으로 분석됐다.

문광연은 분석을 위해 BTS의 지난해 LA 콘서트와 올해 3월 서울 콘서트를 참고했다.

문광연은 “외래관광객 비중의 변화 범위는 지난해 미국 LA 콘서트 관람객 중 70%



방탄소년단(BTS).

이상이 LA 외에 다른 주(州)나 해외의 관객이었다는 기업 내부 자료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공연의 경우 방역조치로 1일 공연에 1만5000명의 관객밖에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6만5000명을 기준으로 관객 수를 산정하고 외래관광객 비중을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은 BTS 콘서트를 예

로 들어 분석했지만, BTS로 대표되는 K-팝 콘서트 개최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BTS 콘서트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대중음악 공연산업을 필두로 문화, 관광 등 유관 분야를 활성화해 코로나를 더욱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선정

다양한 국적 전문성 고려 14명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양한 국적의 감독, 배우, 프로그래머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인들로 구성된 경쟁 부문 및 넷팩(NETPAC)상 심사위원 총 14인을 선정했다.

전주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에 전문성을 고려한 인물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이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경쟁 부문 심사위원에는 지난해 개막식 사회를 맡았고, ‘첫번째 아이’(2021)로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에 선정되는 등 전주국제영화제의 인연이 깊은 배우 박하선이 이름을 올렸다.

발뉴스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베니스국제영화제 ‘베니스 데이즈’ 선정위원인 안드레아 터너세스쿠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등을 역임한 주진숙 교수, 제작사 퍼플렛츠필름을 설립하고 영화감독이자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하는 창 감독, 단 두 편의 장편영화로 전세계 영화제를 휩쓴 오늘날 중남미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감독 클라리사 나비스 감독이 심사를 맡는다.

이들은 전 세계 신인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한다.

한국경쟁 부문은 인디스토리 창립 멤버이자 다양한 영화제와 투자배급사 등에서 영화와 관련된 경력을 쌓은 구정아 불미디어 대표와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로베르토 쿠에토, 발라메디치영화제 위원장 릴리 앤스텔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상과 감독상을 선정한다.

한국단편경쟁 심사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배우상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은 공승연 배우와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많은 영화제에서 작품을 전시·상영했던 영화제작자 겸 큐레이터 벤 러셀 감독,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연애 빠진 로맨스’를 연출한 정가영 감독이 맡았다.

이와 함께 비경쟁부문에서 상영하는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가 심사에 나서는 넷팩(NETPAC)상은 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평가위원,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서곡숙 교수, 아시아영화진흥기구의 부회장이자 쿠시네마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에드 레하노,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오영숙 교수다. /뉴시스



제92회 춘향제 기간 광한루원 일부 무료 개방

남원시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2회 춘향제 기간에 광한루원을 무료 개방한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그간 축제개최에 많은 걸림돌이었던 인원제한이 풀리면서 남원시에서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춘향제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행객의 발길을 축제장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최고의 축제인 춘향제를 관람하기 위하여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들에게 어린이날 및 개막식 당일인 5월 5일(1일간) 광한루원을 무료 개방하고, 오후 6시부터 무료 개방했던 것을 행사기간동안 1시간 앞당겨 오후 5시부터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제92회 춘향제 기간 무료 개방일을 제외한 행사기간 중에 광한루원 성인 입장료 3,000원을 실제 결제한 경우 1,000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줘, 음식점, 상가, 숙박시설 등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3,680개)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에도 선순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창암 이삼만 삶·업적 조명할 유물 공개 구입

5월 2~4일까지 작품 신청 접수

정읍시립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립박물관은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정읍의 역사 인물인 창암 이삼만의 삶과 업적을 조명할 수 있는 작품 등의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고 밝혔다.

구입 대상 유물은 창암 이삼만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로서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개인 소장자,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이며, 도골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유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



정할 계획이다.

유물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하면 된다.

한편, 창암 이삼만은 정읍현 동면 부무리(현 정읍시 부전동) 출생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인 서예가다. 특히, 초서를 잘 썼으며 그의 서체를 창암체라 했다. 전라도 도처의 사찰에 그가 쓴 편액을 볼 수 있다. 하동 칠불암(七佛庵)의 편액과 전주판(全州版) 칠서(七書)도 그의 필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